

재활의학의 길

경희의대 김희상

51년 전 50여명으로 시작한 대한재활의학회는 현재 3279명의 정회원과 80개의 수련병원에
서 100여명의 41기 신입 전공의를 맞이하는 중견 의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17개의 유관학회
와 4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2007년 ISPRM과 2020년 AOCPRM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미국재활의학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재활의학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
하여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의 임상학과 학문적인 수준은 이미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재활의학 전공의 5기로 16명의 동기들과 함께 수련을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지
회나 유관학회도 없이 수련병원 외에는 오르지 춘·추계학술대회와 월례집담회에서만 학문적,
임상적 재활의학을 배울 수 있는 초창기였습니다. 당시 재활의학의 영역은 뇌손상, 척수손상,
뇌상마비, 근전도, PT와 OT, 근골격계의 통증, 보조기 처방,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의 의지 처
방 등 현재와 비교하면 좁은 범위의 재활의학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재활, 림프
부종, 발의학, 수술중신경감시, 스포츠과학운동의학, 신경근골격초음파, 심장호흡재활, 암재활,
연하장애, 임상통증 등 다양하고 다학제적인 17개의 분과 또는 유관학회 및 연구회와 4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정책과 장애인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며, 의사협회나
의학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출선수범으로 참여하며, 국가적 장애인 보건정책과 재활의료 전달
체계확립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공의 지원률과 지원자의 수순도 최상위권
이며, 전문의 취득 후에도 취업률이나 급여도 아직까지는 걱정할 상황은 아닌 이유는 학회 설
립의 선구자들의 도전과 개척, 그리고 학회 설립 후 50년간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학회 차원에서 국가
적인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준비 및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하고, 재활의학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확산시키는 데에도 노
력해야 합니다. 재활의학 전문의의 양성과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
며, 재활의학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 및 치료 효과 분석하고, 재활치료분야 범
위 확대 및 보다 적절한 의료기술 평가제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간(대학 및 수련병
원, 회복기재활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의 회원 요구를 귀담아 들어 재활
정책을 마련하고, 학문적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재활환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해
소해야하며, 의사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발전하며,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에 노
려하며,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국제학회의 참여로 국
제적 리더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활의학 영역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관련 과에서, 그리고 한방, 물리치
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간호직 등 타 의료직종에서도 항상 재활치료 영역을 침범 및 견제하
려는 의도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되었고, 의료계 외에도 정부, 국회, 정치권, 국민 또한 우리
에게 유리하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으로 재활의학의 미래 또한 불투명합니
다.

미래에는 보다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
고 더욱 정확한 예후 예측이 가능한 의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치료나 로봇 등 첨단 보조 기구를 활용한 치료 등이 발전할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함께 인간적인 면도 중요시하여 보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시여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한재활의학회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보다 발전하고 더 나은 재활치료와 생활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가 있기에 이를 이겨낼 것이 라는 확신으로 재활의학의 미래를 기대합니다.